

The Effects of Grit, Academic Engagement, and Parenting Styles on the Trajectory of Adolescents' Happiness¹⁾²⁾

Yang, Sooyeon (Korea Aerospace University, Researcher)
Oh, Insoo³⁾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happiness and influencing factors in order to find ways to improve happines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based on positive psychology. To this end, the survey data for the first to fourth years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KCYPs 2018) were used, and the final analysis was conducted on a total of 2,160 first-year middle school panels. The trajectory of happiness was confirmed through the unconditional model analysis of the latent growth model, and through the condition model analysis of the latent growth model, it was verified whether grit, academic engagement, and positive and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were significantly predicted. As a result, first, adolescents' happiness gradually decreased over the fourth year. Second, grit, academic engagement, and positive and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significantly predicted the initial value of adolescents' happiness and significantly affected the decreasing rate of happines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suggested the direction of longer-term educational intervention to promote happiness so that adolescents can realize happiness even in the process of studying by utilizing positive psychological academic variables.

Key Words : Adolescents' happiness, grit, academic engagement, parenting style, latent growth model(LGM)

-
- 1)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21S1A3A2A01096102).
 - 2) This study was modified form Yang (2023)' s master' s thesis.
 - 3) Corresponding Author: Oh, Insoo,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52, Ewhayodae-gil, Seodaemun-gu, Seoul, Korea, 03760 / E-mail: insoo@ewha.ac.kr

청소년 행복감의 변화궤적에 대한 그릿, 학업열의, 부모의 양육태도의 영향¹⁾²⁾

양수연 (한국항공대학교, 연구원)
오인수³⁾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요약 >

본 연구는 긍정심리학에 근거하여 장기적 관점에서의 행복감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청소년의 행복감과 영향요인의 종단적 관계를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CYPS 2018)의 1차년도에서 4차년도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중학교 1학년 패널 총 2,160명을 대상으로 최종 분석하였다. 잠재성장 무조건모형 분석을 통해 행복감의 변화궤적을 확인하였으며, 잠재성장 조건모형 분석을 통해 그릿, 학업열의, 그리고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 및 부정적 양육태도가 유의하게 예측하는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청소년 행복감은 4차년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감소하였다. 둘째, 그릿과 학업열의, 그리고 부모의 긍정 및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 행복감의 초기값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행복감이 감소하는 속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긍정심리학적 학업 관련 변인을 활용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도 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행복 증진을 위한 보다 장기적 차원의 교육적 개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청소년 행복감, 그릿, 학업열의, 부모의 양육태도, 잠재성장모형

1)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3A2A01096102).
2) 이 연구는 양수연(2023)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함.
3) 교신저자: 오인수, 교수, (03760)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 E-mail: insoo@ewha.ac.kr
논문투고일자: 2023. 08. 22 / 심사일자: 2023. 08. 25 / 게재확정일자: 2023. 09. 16

I. 서론

몇 년 전부터 유행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단어는 저마다의 바쁜 삶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느끼려는 노력을 반영한다. 이는 본래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오래된 주장에 더욱 힘을 실어준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가 행복이라는 논의는 고대 희랍의 Aristotle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의 저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통해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은 ‘에우다이모니아(eudaimonia)’ 즉, 행복이라고 제시하였다(Jung & Yoo, 2021). 행복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추구할 수 있어야 하는 가치이자 권리이다. 우리나라는 누구나 삶의 주체로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청소년현장과 헌법을 통해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청소년의 행복은 심각한 수준이다. OECD 22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표준점수 79.50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하였다(Yeom & Sung, 2021). 이처럼 한국의 아동 및 청소년이 불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입시 위주의 학력주의와 과열된 경쟁을 큰 특징으로 하는 한국의 교육문화가 주요 이유로 지적된다(Kim, 2022). 한국 청소년들은 좋은 성적을 얻고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공부의 목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야만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실제로 학생들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돈이나 성적, 자격증과 같은 물질적 가치를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Yeom & Sung, 2021).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와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TIMSS)에서는 늘 상위권을 유지하면서도(Choi et al., 2021; Sang et al., 2020) 행복지수는 최하위를 기록하는 것 또한 한국 청소년들이 학업성취를 위해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이에, 청소년의 행복감과 관련이 있는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및 우울, 주관적 건강평가, 삶의 만족도 등의 개인요인과 부모의 양육태도,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 등의 환경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예: Choi, 2022; Yim et al., 2018). 최근에는 긍정심리학이 발전함에 따라 그림, 열의 등과 같이 긍정심리학에 근거한 개인 내적 변인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보고된다(예: Park et al., 2021; Park & Yoon, 2021). 청소년 행복감과 관련된 다양한 영향 요인 중에서도 특히, 학업적 변인이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감이 한국의 독특한 교육문화로 인한 학업스트레스와 관련이 깊다는 점과 관련된다. 실제로 관련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교성적은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Kwak & Lee, 2019). 하지만 학업성취는 학습동기, 학업적 자기효능감 등과 같은 다양한 변인과 유의한 관련이 있다(Lee & Ha,

2016).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의 연구는 청소년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학업적 변인을 주로 학업성취에 국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긍정심리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학업과 행복감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긍정심리학적 변인 중 그릿(grit)과 학업열의(academic engagement)는 학업성취와 관련이 큰 요인 중 하나이다(Duckworth et al., 2007; Schaufeli et al., 2002a). 이 둘은 주로 학업성취와 관련된 연구에 활용되었으나 최근 정서적 변인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Credé et al., 2017; Lim & Lee, 2020). 실제로 선행연구에 따르면 그릿과 학업열의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더 많은 행복감을 경험한다(Burgos-Videla et al., 2022; Park & Park, 2020).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그릿과 학업열의는 역경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학업성취를 보이는 학생들의 특성으로 알려져 있는 학업탄력성(academic resilience)을 예측한다는 것이다(Choi & Lim, 2021). 이는 독특한 교육문화와 학업스트레스 등으로 낮은 행복감을 호소하는 한국 청소년에 대하여 그릿과 학업열의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하지만 학업열의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본 선행연구(Choi, 2016; Chung & Park, 2020)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한편, 청소년의 행복감은 개인의 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에 의해 변화한다(Fujita & Diener, 2005). 따라서 개인 및 환경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그릿과 학업열의, 행복감 각각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환경요인으로 밝혀진 부모의 양육태도에 주목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그릿과 학업열의, 행복감에 대하여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이들을 모두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2020; Kim et al., 2022). 반면,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이들을 모두 유의하게 증진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Duckworth, 2016; Shin & Park, 202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선정하고, 이를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로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청소년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청소년 행복감 사이의 관계는 종단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이는 청소년의 발달이 학년에 따라 개인차가 크다는 사실과 관련된다(Ko & Kim, 2021). 실제로 그릿과 학업열의, 그리고 청소년 행복감은 학년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며 차이를 나타낸다는 사실이 보고되고 있다(Chung et al., 2022; Lewis et al., 2011). 이와 더불어, 인간의 발달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맥락과 이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 결과라고 보는 생태체계이론(Bronfenbrenner, 1994)에 따르면, 환경적 맥락이 개인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때는 시간의 경과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행복감의 변화궤적을 살펴봄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른 청소년 행복감의 증가 혹은 감소 경향성을 확인하고, 이에 학업과 관련한 긍정심리

학적 변인인 그릿과 학업열의, 그리고 청소년의 주요 발달환경인 부모의 긍정 및 부정적 양육태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본 연구는 긍정심리학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행복감과 영향요인의 종단적 관계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행복감의 변화궤적을 그릿, 학업열의, 그리고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 및 부정적 양육태도가 유의하게 예측하는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학생의 발달을 고려하여 행복감 증진을 위한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청소년 행복감의 발달궤적은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 그릿, 학업열의,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 행복감의 발달궤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행복감

행복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크게 쾌락주의(hedonism)적 행복과 자기실현적(self-actualization) 행복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쾌락주의적 행복에 대한 논의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즐거움을 극대화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주장하였던 Epicurus의 쾌락주의 학파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쾌락주의적 관점에서 행복은 정서 및 인지적으로 즐거운 삶(pleasing life)을 누림으로써 만족감을 얻는 것과 관련이 있다(Peterson et al., 2005). 이와 같은 쾌락주의적 행복은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이라는 개념으로 오늘날까지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반면, 자기실현적 행복은 고대 그리스의 Aristotle이 자신의 저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통해 제시한 eudaimonia에서 비롯되었다. 자기실현적 행복은 의미 있는 삶(meaningful life)을 영위함으로써 만족감을 얻는 것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Peterson et al., 2005). 이는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이라는 개념으로 지금까지 연구되고 있다. 행복은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aly & Wilson, 2009; D. U. Lee, 2022).

2. 그릿(grit)과 청소년 행복감

그릿은 실패나 역경, 정체(plateaus)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일을 하며 노력과 관심을 유지하는 열정(passion)과 끈기(perseverance)로 정의할 수 있다(Duckworth et al., 2007; Duckworth & Quinn, 2009). 그것의 하위요인은 흥미 유지(consistency of interest)와 노력지속(perseverance of effort)으로 구성된다(Duckworth & Quinn, 2009). 먼저, 흥미유지는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과제에 대하여 관심을 오랜 시간에 걸쳐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는 관심을 유지하고 집중시킨다는 점에서 열정이라는 개념과 유사하다. 다음으로, 노력지속은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대하여 꾸준히 오랜 시간동안 노력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에 노력지속은 끈기와 유사한 개념이다. 흥미 유지와 노력지속은 모두 성취와 성공에 기여하는 것으로 고려되는데, 흥미유지는 장시간동안 지속적인 숙달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노력지속은 성취를 위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실패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한다(Credé et al., 2017).

그것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학업성취와의 영향 관계를 확인하였다(Clark et al., 2020). 하지만 최근에는 그것이 학업성취뿐만 아니라 주관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등으로 표현되는 행복감을 포함한 심리적 건강과도 유의한 관련을 갖는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Credé et al., 2017; Liu & Cho, 2020). 실제로 국내외의 선행연구는 그것이 청소년의 행복감을 유의하게 예측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Ma & Kim(2021)은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그것이 행복에 대하여 정적으로 유의한 부분매개효과를 갖는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Sohn & Kim(2022) 또한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남녀 청소년 집단 모두에서 그것은 행복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함을 확인하였다. Akbağ & Ümmet(2017)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것이 주관적 안녕감을 유의하게 정적으로 예측하는 요인임을 입증하였다. Disabato et al.(2019)은 그것의 하위요인을 흥미유지와 노력지속으로 조사한 경우, 웰빙은 그것과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3. 학업열의(academic engagement)와 청소년 행복감

학업열의는 학생들의 참여, 투자, 헌신, 그리고 학업 및 학교 관련 활동에 대하여 학생들의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념이다(Alrashidi et al., 2016). 학업열의를 구성하는 하위요인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대표적으로 Schaufeli et al.(2002a)은 헌신(dedication), 활기(vigor), 그리고 몰두(absorption)를 학업열의의 하위요인으로 제안하였다. 헌신은 학업적인 배움에 대한 열망(inspiration), 자신감(pride), 그리고 열정(enthusiasm)과 관련된 것으로, 학업에 관여(invovement)하고 강하게 몰입하는 것을 의미한다(Schaufel et al., 2002b). 활기는 학업 과정에서 높은 에너지를 유지하고 정신적인 회복력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학업에 기꺼이 노력을 투자하는 것과 관련되는데, 이는 역경을 마주했을 때도 지속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Schaufeli et al, 2002b). 또한, 몰두는 학습을 하는 동안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고 지각하며 학업과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 상태이다(Schaufeli et al., 2002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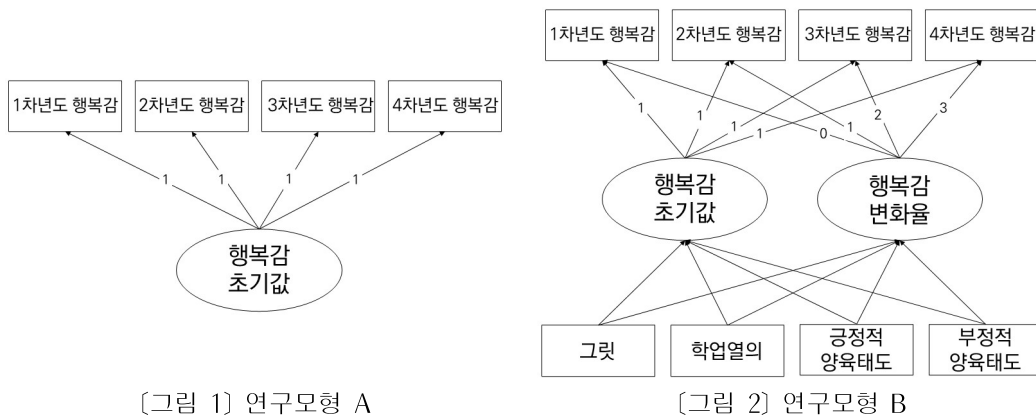
학업열의는 학업성취를 정적으로 예측하는 또 다른 강력한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Ham & Park, 2022). 하지만 최근에는 학업열의가 학업성취뿐만 아니라 그림, 학업탄력성, 개인의 주관적 행복감 등과 같이 정서적 영역을 긍정적으로 예측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Lim & Lee, 2020). 이 중, 학업열의 혹은 학습열의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이것과 행복감의 관계를 분석한 국내외 문헌은 3편으로, 아직 제한적인 상황이다. 해당 연구 중 Choi(2016)는 대학생 을 대상으로, 학습열의가 행복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함을 확인하였다. Datu & King(2018)은 필리핀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를 통해 1차년도의 학업열의는 2차년도의 삶의 만족도와 긍정정서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며 부정정서에 대해서는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Lewis et al.(2011)은 학업열의와 청소년의 행복감 사이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분석한 연구를 통해 1차년도의 학업열의가 2차년도의 행복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4. 부모의 긍정 및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 행복감

양육태도는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일관적인 행동과 이에 대한 경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Skinner et al., 2005). 자녀에게 부모는 최초의 애착관계를 형성한 주요 타자(significant others)이다. 이에 부모의 양육방식이나 태도, 구체적인 행동 등은 자녀의 자아개념 형성과 인지·정서·행동 발달 등 청소년의 전반적인 성장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Jeong et al., 2012). 특히, 청소년의 개인 내적 요인 발달에 대한 양육태도의 영향은 주로 심리·정서적 발달영역에 주목한다(Calders et al., 2020). 이러한 사실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로 이어질 수 있다(Jung & Chyung, 2022). Kang & Lee(2022)는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청소년 행복감에 대하여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다. Chang(2022)은 부모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보이는 청소년일수록 행복감의 초기값이 높으며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행복감이 비교적 완만한 속도로 하락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Willroth et al.(2020)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자녀의 행복감은 초기에 높은 수준을 나타내며 이후 변화가 거의 없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S. Y. Lee(2022)는 3차년도에 걸친 종단연구를 통해 전년도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강압적이거나 온정적이지 않고 비일관적이라고 인식하는 청소년은 그 다음해의 행복감을 유의하게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하였

다. Jeon & Chung(2016)은 중학교 3학년 시기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이라고 지각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의 행복감이 유의하게 낮아짐을 입증하였다. Leung et al.(2004)은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삶의 만족도는 횡단 및 종단적으로 모두 유의하게 감소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상과 같이 그릿, 학업열의, 그리고 부모의 긍정 및 부정적 양육태도는 각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는 다음의 [그림 1], [그림 2]와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A

[그림 2] 연구모형 B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이하, KCYPS 2018) 자료 중 중학교 1학년 패널의 1차년도에서 4차년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조사는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다면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KCYPS 2018은 2017년 기초연구를 시작으로 1차(2018년), 2차(2019년), 3차(2020년), 4차(2021년)까지 매년 1회씩 조사되었다. 해당 조사는 다단계 층화집락 추출법(multi-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활용하여 17개의 시·도에 소재한 3,213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교 1학년 총 448,816명 중 162개교의 2,590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 패널 중에서 4차년도까지 모두 응답한 학생 총 2,160명의 1차년도에서 4차년도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KCYPS 2018 자료 중 그릿, 학업열의, 양육태도, 행복감을 측정한 중학교 1학년 패널의 1차년도(2018년)에서 4차년도(2022년) 자료를 추출하여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행복감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은 1차년도의 자료를, 행복감은 1차년도에서 4차년도까지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해당 측정문항들은 모두 Likert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아주 불행한 사람이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불행한 사람이다, 3=그런 편이다/행복한 사람이다, 4=매우 그렇다/아주 불행한 사람이다)의 자기보고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변인에 대한 측정도구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가. 그릿

그릿 측정에는 KCYPS 2018에서 사용한 그릿 8문항을 활용하였다. KCYPS 2018은 그릿을 측정하기 위해 Duckworth & Quinn(2009)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그릿 척도 Grit-s를 Kim & Hwang(2015)이 변안한 한국판 아동용 그릿 척도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흥미유지와 노력지속 각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릿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흥미유지를 측정하는 문항의 경우, 부정적인 질문으로 구성되어 역채점하여 활용하였다. 그릿 측정문항에 대한 예시로는 “나는 무엇을 하다가 다른 생각이 나면 집중하기가 어렵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708로 나타났다.

나. 학업열의

학업열의 측정에는 KCYPS 2018에서 사용한 학업열의 16문항을 활용하였다. KCYPS 2018은 학업열의 측정을 위해 Lee & Lee(2012)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한국형 학업열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업에 대한 헌신(dedication), 활기(vigour), 효능감(efficacy), 그리고 몰두(absorption) 각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열의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학업열의 측정문항에 대한 예시로는 “나는 내가 하고 있는 공부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안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929로 나타났다.

다. 부모의 양육태도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측정에는 KCYPS 2018에서 사용한 양육태도 24문항을 활용하였다. KCYPS 2018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Skinner et

al.(2005)이 개발한 청소년용 부모양육태도 척도(Parents as Social Context Questionnaire: adolescent-report)를 Kim & Lee(2017)의 한국판 부모의 부모양육태도(PSCQ_KA) 척도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 거부, 강요, 비밀관성 각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을 긍정적 양육태도로, 거부, 강요, 비밀관성을 부정적 양육태도로 설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양육태도가 높거나 부정적 양육태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측정문항에 대한 예시로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신다.” 등이, 부정적 양육태도 측정문항에 대한 예시로는 “부모님이 나를 좋아하시는지 가끔 궁금할 때가 있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신뢰도 계수(Cronbach의 α)는 1차년도 긍정적 양육태도의 경우, .917로 나타났다. 1차년도 부정적 양육태도의 경우,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72로 나타났다.

라. 행복감

행복감 측정에는 KCYPS 2018에서 사용한 행복감 4문항을 활용하였다. KCYPS 2018은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Lyubomirsky & Lepper(1999)의 주관적 행복 척도(The Subjective Happiness Scale: SHS)를 Lee et al.(2015)이 번안하여 사용한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조사(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Kim et al., 2016)의 행복지수 관련 문항을 사용하였다. 1개의 부정적인 문항은 역채점하여 분석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행복감 측정문항에 대한 예시로는 “전반적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1차년도에는 .796, 2차년도에는 .758, 3차년도 .734, 4차년도에는 .705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자료 분석에는 SPSS 29.0과 AMOS 26.0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구체적인 자료 분석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릿, 학업열의, 부모의 긍정 및 부정적 양육태도, 그리고 행복감의 각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 계수인 Cronbach α 값을 산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주요 변인의 1차년도에서 4차년도 자료에 대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변인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시간에 따른 행복감의 변화궤적을 그릿과 학업열의, 부모의 긍정 및 부정적 양육태도가 유의하게 예측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앞서 잠재성장 무조건모형 분석을

통해 행복감의 측정값이 학년에 올라감에 따라 선형적인 변화를 보이는지 확인한 결과를 바탕으로 잠재성장 조건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기술통계 분석

1차년도에서 4차년도까지 각 조사시점에서의 그림, 학업열의, 부모의 긍정 및 부정적 양육태도, 그리고 행복감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측정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N=2,160)

변인	연도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그림	1차	1.250	4.000	2.657	.437	.375	.364
학업열의	1차	1.000	4.000	2.475	.551	.042	.368
긍정적 양육태도	1차	1.167	4.000	3.267	.483	-.361	-.200
부정적 양육태도	1차	1.000	4.000	1.987	.528	.392	.103
행복감	1차	1.000	4.000	3.140	.544	-.313	.250
	2차	1.000	4.000	3.069	.474	.013	.493
	3차	1.000	4.000	3.052	.458	-.119	1.023
	4차	1.000	4.000	2.984	.444	.085	1.009

그림, 학업열의,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 및 부정적 양육태도, 그리고 행복감 측정변수들의 평균은 최소 1.964에서 최대 3.267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최소 .379에서 최대 .551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의 모든 측정변수들의 왜도의 절댓값은 1이하로, 첨도의 절댓값은 2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정규분포의 정상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Curran et al., 1996; Kline, 2011). 구체적으로, 모든 변인의 측정변수들의 왜도는 절댓값 최소 .004에서 최대 .375로, 첨도는 절댓값 최소 .029에서 최대 1.023으로 나타났다.

2.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1차년도의 그림, 학업열의,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 및 부정적 양육태도, 그리고 1차년도에서 4차년도의 행복감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1-4차년도 주요변인에 대한 상관행렬

(N=2,160)

	A	B	C	D	E	F	G	H
A	-							
B	.503**	-						
C	.348**	.360**	-					
D	-.367**	-.235**	-.526**	-				
E	.443**	.377**	.498**	-.411**	-			
F	.248**	.187**	.304**	-.247**	.437**	-		
G	.254**	.183**	.265**	-.206**	.372**	.453**	-	
H	.136**	.097**	.189**	-.123**	.244**	.354**	.507**	-

A. 그림 1차, B. 학업열의 1차, C. 긍정적 양육태도 1차, D. 부정적 양육태도 1차, E. 행복감 1차, F. 행복감 2차, G. 행복감 3차, H. 행복감 4차

** $p < .01$

모든 측정변수의 상관계수는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그림과 학업열의,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그리고 행복감은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관계수는 최소 .097에서 최대 .507 사이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나머지 변인과 모두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관계수는 최소 -.526에서 최대 -.123 사이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변인들의 상관계수가 .9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Kline, 2011).

3. 청소년 행복감에 대한 잠재성장 무조건모형 분석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수행하기 전에는 분석하고자 하는 자료의 측정값이 전반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Kim, 2017). 이에, 청소년 행복감의 시점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았다. 해당 결과는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청소년 행복감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변화

(N=2,160)

연도	평균	표준편차
1차	3.140	.544
2차	3.069	.474
3차	3.052	.458
4차	2.984	.444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의 경우, 1차년도에 3.140에서 시작하여 4차년도에는 2.984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의 행복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 자료는 잠재성장모형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어서, 청소년 행복감의 변화궤적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최적의 모형을 찾아내기 위하여 잠재성장 무조건모형(연구모형 A)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의 <표 4>와 같다.

<표 4> 청소년 행복감에 대한 잠재성장 무조건모형(연구모형 A)의 적합도 비교

(N=2,160)

모형	$\chi^2(df)$	p	CFI	TLI	RMSEA (90% 신뢰구간)
무변화	308.380(8)	.000	.829	.871	.132(.119-.145)
선형변화	19.149(5)	.002	.992	.990	.036(.020-.054)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을 구성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두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할 때는 χ^2 검증과 적합도 지수 CFI, TLI, 그리고 RMSEA를 기준으로 하였다. 4차년도에 걸쳐 청소년 행복감에 변화가 없음을 가정한 무변화모형의 경우, 적합도가 χ^2 값은 308.380($p<.001$), CFI는 .829, TLI는 .871, RMSEA는 .132로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 행복감이 매년 감소한다고 가정한 선형변화모형의 경우, χ^2 값은 19.149($p<.01$), CFI는 .992, TLI는 .990, RMSEA는 .036으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선형변화모형이 무변화모형의 적합도보다 더 좋은 값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최종적으로 청소년 행복감의 변화궤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으로 선형변화모형을 채택하였다. 이어서, 청소년 행복감에 대한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에서의 평균과 분산의 초기값 및 변화율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청소년 행복감에 대한 잠재성장 무조건모형(연구모형 A)의 모수 추정치 (N=2,160)

모형	평균		분산		초기값-변화율 공분산
	초기값 (표준오차)	변화율 (표준오차)	초기값 (표준오차)	변화율 (표준오차)	
무변화	3.052(.008) ^{***}	-	.091(.004) ^{***}	-	-
선형변화	3.133(.011) ^{***}	-.048(.004) ^{***}	.144(.008) ^{***}	.016(.001) ^{***}	-.582 ^{***}

^{***} p<.001

무변화모형의 경우, 평균의 초기값은 3.052(p<.001), 분산의 초기값은 .091(p<.001)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선형변화모형의 경우, 평균의 초기값은 3.133(p<.001), 변화율은 -.048(p<.001)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분산의 초기값은 .144(p<.001), .016(p<.001)으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선형변화모형을 선택함에 따라 추정된 청소년 행복감 평균의 초기값은 3.133(p<.001)이며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매년 -.048(p<.001)씩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행복감 초기값의 분산과 변화율의 분산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은 1차년도에 청소년 행복감은 유의한 개인차가 있으며 그 변화율 또한 개인 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청소년 행복감의 초기값과 변화율 사이의 공분산은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1차년도 행복감의 측정값이 높을수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행복감이 더욱 급격하게 감소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1차년도에 높은 행복감을 보이는 학생일수록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행복감의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지만, 1차년도에 낮은 행복감을 보이는 학생일수록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행복감이 느린 속도로 감소한다는 것이다.

4. 청소년 행복감에 대한 잠재성장 조건모형 분석

이상을 통해 조건모형을 구성하여 청소년 행복감의 초기값과 변화율을 설명할 수 있는 예측변인을 투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그릿과 학업열의, 청소년이 지각한 긍정 및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 행복감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아래의 조건모형(연구모형 B)을 구성하였다. 먼저, 모형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청소년 행복감에 대한 잠재성장 조건모형(연구모형 B)의 적합도 (N=2,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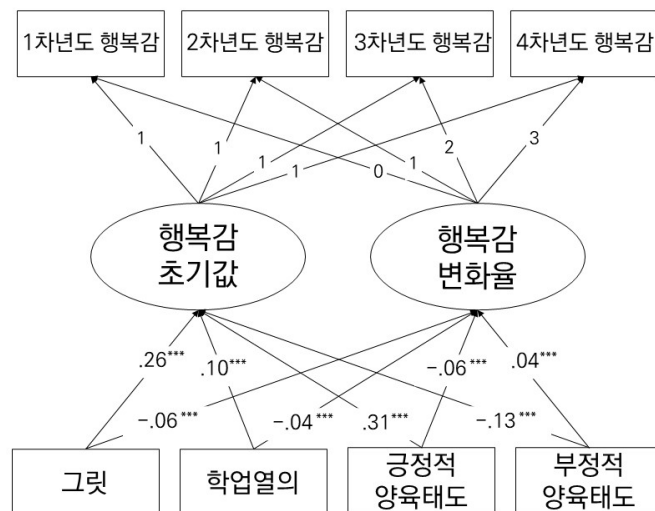
$\chi^2(df)$	p	CFI	TLI	RMSEA(90% 신뢰구간)
106.855(13)	.000	.979	.954	.058(.048~.068)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할 때는 χ^2 검증과 적합도 지수 CFI, TLI, 그리고 RMSEA를 기준으로 하였다. χ^2 값은 106.855($p < .001$), CFI는 .979, TLI는 .954, RMSEA는 .058로 나타나 해당 모형은 수용 가능한 적합도를 갖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어서, 잠재성장 조건모형 분석을 통해 그릿과 학업열의,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긍정 및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 행복감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면 <표 7>, [그림 3]과 같다.

<표 7> 청소년 행복감에 대한 잠재성장 조건모형(연구모형 B)의 모수 추정치 (N=2,160)

변인	행복감 초기값 (표준오차)	행복감 변화율 (표준오차)
그릿	.258(.024) ^{***}	-.059(.011) ^{***}
학업열의	.096(.019) ^{***}	-.035(.008) ^{***}
긍정적 양육태도	.305(.022) ^{***}	-.060(.010) ^{***}
부정적 양육태도	-.134(.020) ^{***}	.043(.009) ^{***}

*** $p < .001$



[그림 3] 잠재성장 조건모형의 모수 추정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요인인 그릿과 학업열의, 그리고 가정요인인 긍정 및 부정적 양육태도는 행복감 초기값과 변화율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먼저, 개인요인의 그릿의 경우, 행복감 초기값에 미치는 영향은 비표준화 경로계수가 .258($p < .001$)로 나타나 1차년도에 그릿이 높은 학생일수록 1차년도 행복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행복감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비표준화 경로계수가 $-.059(p < .001)$ 로 나타나 1차년도에 그릿이 높은 학생일수록 시간의 경과에 따라 행복감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학업열의가 행복감 초기값에 미치는 영향은 비표준화 경로계수가 .096($p < .001$)으로 나타나 1차년도에 학업열의가 높은 학생일수록 1차년도의 행복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업열의가 행복감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비표준화 경로계수가 $-.035(p < .001)$ 임에 따라 1차년도 학업열의가 높은 학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행복감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요인인 긍정적 양육태도의 경우, 행복감 초기값에 미치는 영향은 비표준화 경로계수가 .305($p < .001$)임에 따라 1차년도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이라고 지각하는 청소년일수록 1차년도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복감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비표준화 경로계수가 $-.060(p < .001)$ 으로 나타나 1차년도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이라고 지각하는 청소년의 경우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행복감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부정적 양육태도의 경우, 행복감 초기값에 미치는 영향은 비표준화 경로계수가 $-.134(p < .001)$ 임에 따라 1차년도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이라고 지각하는 청소년일수록 1차년도 행복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복감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비표준화 경로계수가 .043($p < .001$)으로 나타나 1차년도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이라고 지각하는 청소년의 경우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행복감이 완만한 속도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KCYPS 2018 중학교 1학년 패널의 1차년도에서 4차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통해 학년이 올라감에 따른 청소년 행복감의 변화궤적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그릿, 학업열의, 그리고 부모의 긍정 및 부정적 양육태도 각각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연구문제 별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년이 올라갈수록 청소년의 행복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행복감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사실을 보고한

선행연구와 일치한다(Chang, 2022; Song, 2018). 하지만 행복감의 종단적 변화궤적을 분석한 일부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상반된다(Salmela-Aro & Tuominen-Soini, 2010; Steinmayr et al., 2019). 이러한 결과는 모두 서양 문화권의 연구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는 동아시아의 관계지향적 문화가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이 경험하는 행복감의 수준을 다른 문화권의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보고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Suh(2007)의 연구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동아시아는 집단주의 성격이 강해 소속감과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에 비교적 더 큰 가치를 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개인들은 집단의 평가와 환경적 맥락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기에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회적 관계에 비교적 더 큰 가치를 두며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의 자아정체감을 형성해 나간다(Hwang et al., 2013).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한국 청소년 또한 관계지향적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개인의 행복보다는 집단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을 더욱 가치 있게 여김으로써 행복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청소년들의 낮은 행복감과 이러한 행복감이 시간에 따라 더욱 감소하는 것을 단순히 관계지향적 문화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의 2022년도 자료에 따르면 매우 행복하다는 응답을 한 청소년이 프랑스와 영국 등에서는 20%대에 근접하였으며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의 국가인 일본의 경우에는 5%대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0.7%로, 1%도 채 되지 않았다. 또한, OECD 22개 회원국의 아동 및 청소년 중 우리나라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은 최하위로 확인되었다(Yeom & Sung, 2021). 이처럼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특별히 낮은 한국 청소년의 행복감과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변화 추이에 대해서는 성취 및 입시 중심주의와 과열된 경쟁 등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 교육문화의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Mo & Lee, 2012).

한국 청소년들은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을 학업의 목표이자 행복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은 행복을 유예하며 공부에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한다. PISA와 TIMSS와 같은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비교 연구에서는 늘 상위권을 유지하면서도(Choi et al., 2021; Sang et al., 2020) 행복지수는 최하위를 기록하는 것 또한 한국 청소년들이 좋은 성적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대학입시가 가까워지며 더욱 심각해진다(Shim & Yi, 2018). 따라서 한국 청소년들이 학업의 이유와 목표에 대해 보다 건강한 인식을 갖고 행복을 유예하기보다는 학업 과정에서 긍정적 정서와 몰입 등을 통해 행복감을 꾸준히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때, 행복감 증진을 목표로 하는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학습과정에서도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연계된 행복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그릿, 학업열의,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 행복감의 초기값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반면,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 행복감의 초기값을 부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이는 그릿이 성별에 관계없이 청소년 행복감을 긍정적으로 예측한다는 Sohn & Kim(2022)의 연구와 다양한 국가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그릿이 행복의 발달을 정적으로 예측한다는 사실을 보고한 Disabato et al.(2019)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실현적 관점에서 행복이 의미를 추구함으로써 실현된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Lim & Yu, 2022). 그릿은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열정과 끈기를 지속하도록 한다. 이러한 특성은 특히, 학생들이 학업에 흥미를 갖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으로 하여금 배움과 의미 추구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행복을 경험하도록 한다. 이러한 현상은 스트레스를 낮추며 상대적으로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Kim & Kim, 2023).

학습자의 열의가 행복을 긍정적으로 예측한다고 보고한 Choi(2016)의 연구와 1차년도 학업열의가 높을수록 2차년도의 행복감 또한 높다는 사실을 확인한 Datu & King(2018), 그리고 Lewis et al.(2011)의 연구 또한 본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열의가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몰입을 향상시킨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학업에 대한 높은 에너지와 집중력을 의미하는 학업열의는 청소년의 학업 수행 능력을 유의하게 증진시키며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행복감을 증진시킨다(Casuso-Holgado et al., 2013; Lee & Kang, 2021). 이와 더불어 학업열의는 학생이 학습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내재적 동기를 찾아냄으로써 학업 과정 자체가 보상이 되며 행복감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몰입 경험 가능하도록 한다(Nakamura & Csikszentmihalyi, 2014). 또한, 자기효능감이 몰입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변인임을 고려한다면(Park & Oh, 2016), 학업열의를 통한 자기효능감의 증진은 몰입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 행복감의 발달을 정적으로 예측한다는 선행연구 또한 본 결과를 지지한다(Willroth et al., 2020).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 행복감을 부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므로 이를 지양해야 한다는 선행연구 마찬가지로 본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Kim et al., 2022). 최초의 애착관계를 형성한 주요 타자인 부모는 특히 자녀의 심리·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애정적이며 지지적인 양육태도는 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감을 감소시키고 사회성을 증진시키는 등, 사회·정서적 발달을 긍정적으로 예측한다(Calders et al., 2020). 이에 따라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반면, 수용적이지 않거나 부모의 기분이나 상황 등에 따라 비일관적인 양육태도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존성을 강화하거나 자아존중감 및 사회기술을 낮추고 우울과 같은 정서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을 유의하게 높이

는 등,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mokowski et al., 2015). 이러한 현상은 결국 자녀의 행복감을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한편, 그릿, 학업열의, 그리고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모두 청소년 행복감의 변화율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 행복감의 변화율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현상은 중학교 1학년 시기에 그릿과 학업열의가 높으며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청소년은 행복감의 초기값이 높아 시간이 지나면서 행복감이 감소할 수 있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중학교 1학년 시기에 그릿과 학업열의가 모두 낮고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청소년들은 행복감의 초기값이 낮아 학년이 올라가며 행복감이 감소할 수 있는 폭이 비교적 좁아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이다. 이는 종단연구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며 (Son et al., 2017), 행복감의 초기값이 낮은 학생의 경우, 초기값이 높은 학생에 비해 행복감이 감소할 수 있는 범위가 좁은 바닥효과(floor effect)로 설명된다. 따라서 해당 결과만으로 낮은 행복감에 대한 보호요인인 그릿, 학업열의, 그리고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청소년 행복감의 감소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청소년 행복감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변화양상에 대하여 그릿과 학업열의, 그리고 부모의 긍정 및 부정적 양육태도는 횡단적인 영향뿐만 종단적으로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와 관련하여 두 번째 연구문제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청소년의 행복 증진을 위한 교육적 개입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업탄력성의 증진과 관련된 그릿과 학업열의를 높일 수 있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다. 자기실현적 관점에서 행복의 실현은 의미 추구를 통해 가능하다고 제안한 점을 고려하면, 그릿과 학업열의는 청소년들이 배움을 통해 의미를 추구하도록 촉진하며 궁극적으로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이 두 변인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학업성취를 보이는 학생의 특성인 학업탄력성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Choi & Lim, 2021). 성취 및 입시 경쟁이 심한 한국 사회는 학업의 결과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이는 학업 과정에서 한국 청소년들이 특정 결과를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감과 좌절이나 무기력함을 느끼게 한다. 한국 청소년들에게는 학업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과 더불어 사회·문화적으로 부과되는 학업에서의 역경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그릿과 학업열의를 통한 학업탄력성의 증진은 이들에게 매우 필요하다.

다음으로, 자율성과 독립심이 강해지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여전히 부모의 긍정적인 관심과 지지, 그리고 애정이 중요하며 이와 동시에 강요나 거부, 비밀관적인 반응 등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특히, 긍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 행복감의 초기값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기가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지는 시기이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부모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시기라는 사실과 관련된다(Sim & Jeon, 2008). 따라서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양육태도를 학습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논의하고 시행함이 중요하겠다. 이때, 단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장기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부모들이 자신의 긍정 및 부정적 양육태도에 대해 점검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양육태도를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할 수 있겠다.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정서·심리적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청소년의 그릿과 행복감 증진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Kang, 2022). 따라서 이상과 같은 연구를 통해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대한 더욱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다음으로, 현재까지 조사된 패널자료를 이용함으로써 더 장기적인 차원의 분석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추후 조사된 자료를 추가하여 종단적 분석을 실시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교육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위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먼저, 본 연구는 긍정심리학적 관점에서의 학업 관련 변인과 한국 청소년의 행복감과의 관계를 조명하였다. 이를 통해 행복은 높은 학업성취라는 전제조건이 있어야만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학습하는 것을 돕는데 학문적 배경이 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다수의 선행연구가 학업과 관련한 변인을 주로 학업성취에 국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릿과 학업열의와 같이 보다 다양한 학업적 변인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업열의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두 변인 사이의 횡단 및 종단적 관계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행복 증진을 위한 보다 장기적인 차원의 교육적 개입과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References

- Akbağ, M., & Ümme, D. (2017). Predictive role of grit and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on subjective well-being for young adults. *Journal of Education and Practice*, 8(26), 127-135.
- Alrashidi, O., Phan, H. P., & Ngu, B. H. (2016). Academic engagement: An over view of its definitions, dimensions, and major conceptualisations. *International Education Studies*, 8(12), 41-52.
- Bronfenbrenner, U. (1994). Ecological models of human development.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Education*, 3(2), 37-43.
- Burgos-Videla, C., Jorquera-Gutiérrez, R., López-Meneses, E., & Bernal, C. (2022). Life satisfaction and academic engagement in Chilean undergraduate students of The University of Atacama.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9(24), 1-12. <https://doi.org/10.3390/ijerph192416877>
- Calders, F., Bijttebier, P., Bosmans, G., Ceulemans, E., Colpin, H., Goossens, L., Van Den Noortgate, W., Verschueren, K., & Van Leeuwen, K. (2020). Investigating the interplay between parenting dimensions and styles, and the association with adolescent outcomes.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29(3), 327-342. <https://doi.org/10.1007/s00787-019-01349-x>
- Casuso-Holgado, M. J., Cuesta-Vargas, A. I., Moreno-Morales, N., Labajos-Manzanares, M. T., Barón-López, F. J., & Vega-Cuesta, M. (2013). The association between academic engagement and achievement in health sciences students. *BMC Medical Education*, 13(33), 1-7. <https://doi.org/10.1186/1472-6920-13-33>
- Chang, H. S. (2022). The change trajectory of happiness of high school students using the growth-mixed model and predictive effect by point in tim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9(2), 287-315. <https://doi.org/10.21509/KJYS.2022.02.29.2.287> 국문: 장희선 (2022).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한 행복 변화궤적과 시점별 예측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9(2), 287-315.
- Choi, H. C. (2022). Reciprocal relationships between and grade latent mean differences of happiness and self-esteem in middle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49(2), 5-36. <https://doi.org/10.22804/jke.2022.49.2.001> 국문: 최희철(2022). 중학생의 행복과 자존감의 상호인과적 관계와 학년별 잠재평균의 차이. *한국교육*, 49(2), 5-36.
- Choi, I. S., Kim, M. H., Kim, S. J., Kim, H. J., & Lee, S. Y. (2021). *Relation analysis of*

- cognitive achievement and context variables about PISA 2018 top-performing countries.*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Evaluation (RRE 2021-4). https://nkis.re.kr/subject_view1.do?otpId=OTP_0000000000008086&otpSeq=0&popup=P ㉞ 국문: 최인선, 김명화, 김수진, 김현정, 이신영(2021). **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 PISA 2018 상위국 성취 특성 및 교육맥락변인과의 관계 분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E 2021-4).
- Choi, J. H. (2016). The structural relation among time management, engagement, and happiness. *The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29(1), 1-19. ㉞ 국문: 최지혜 (2016). 시간관리, 열의, 행복간 구조적 관계. **교육문제연구**, 29(1), 1-19.
- Choi, J. Y., & Lim, H. J. (2021). Predictors of academic resilience among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and academic engagement.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1), 921-950.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1.921> ㉞ 국문: 최정윤, 임호진(2021).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업탄력성을 예측하는 요인: 그릿과 학업열의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 921-950.
- Choi, Y. M. (2020).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arenting attitude, teacher attachment & academic engagement.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3), 915-936. <https://doi.org/10.22251/jlcci.2020.20.23.915> ㉞ 국문: 최영미 (2020). 부모의 긍부정적 양육태도, 교사애착, 학업열의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3), 915-936.
- Chung, H. W., & Park, S. Y. (2020). Classifying latent profiles in grit and happiness of adolescents and testing the effects of individual, parental, peer and teacher factors. *Secondary Education Research*, 68(1), 135-167. ㉞ 국문: 정혜원, 박소영(2020). 청소년의 그릿 및 행복감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분류와 개인, 부모, 친구, 교사요인 영향 검증. **중등교육연구**, 68(1), 135-167.
- Chung, H. W., Baek, Y. E., & Kim, A. R. (2022). Exploring influencing variables on a longitudinal change of middle school students' grit. *Korean Education Inquiry*, 40(1), 53-74. <https://doi.org/10.22327/kei.2022.40.1.053> ㉞ 국문: 정혜원, 백예은, 김아름(2022). 중학생의 그릿에 대한 종단적 변화 및 영향 요인 탐색. **한국교육문제연구**, 40(1), 53-74.
- Clark, K. N., Dorio, N. B., Eldridge, M. A., Malecki, C. K., & Demaray, M. K. (2020). Adolescent academic achievement: A model of social support and grit. *Psychology in the Schools*, 57(2), 204-221. <https://doi.org/10.1002/pits.22318>
- Credé, M., Tynan, M. C., & Harms, P. D. (2017). Much ado about grit: A meta-analytic synthesis of the grit litera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3(3), 492-511. <https://doi.org/10.1037/pspp0000102>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https://doi.org/10.1037/1082-989X.1.1.16>
- Daly, M. C., & Wilson, D. J. (2009). Happiness, unhappiness, and suicide: An empirical assessment.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7(2-3), 539-549. <https://doi.org/10.1162/JEEA.2009.7.2-3.539>
- Datu, J. A. D., & King, R. B. (2018). Subjective well-being is reciprocally associated with academic engagement: A two-wave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69(0), 100-110. <https://doi.org/10.1016/j.jsp.2018.05.007>
- Disabato, D. J., Goodman, F. R., & Kashdan, T. B. (2019). Is grit relevant to well-being and strengths? Evidence across the globe for separating perseverance of effort and consistency of interests. *Journal of Personality*, 87(2), 194-211. <https://doi.org/10.1111/jopy.12382>
- Duckworth, A. L. (2016). *Grit: The power of passion and perseverance*. Scribner.
- Duckworth, A. L., & Quinn, P. D. (200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hort grit scale (GRI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1(2), 166-174. <https://doi.org/10.1080/00223890802634290>
- Duckworth, A. L., Peterson, C., Matthews, M. D., & Kelly, D. R. (2007).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6), 1087-1101. <https://doi.org/10.1037/0022-3514.92.6.1087>
- Fujita, F., & Diener, E. (2005). Life satisfaction set point: Stability and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1), 158-164. <https://doi.org/10.1037/0022-3514.88.1.158>
- Ham, Y. R., & Park, B. H. (2022). The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and self-esteem of parents and children, academic helplessness, academic engage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Multigroup analysis across gender.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9(12), 341-365. <https://doi.org/10.21509/KJYS.2022.12.29.12.341> 국문: 함영난, 박분희 (2022). 부모와 자녀의 행복감과 자존감, 학업무기력, 학업열의 및 학업성취 간의 관계: 성별 간 다집단분석. **청소년학연구**, 29(12), 341-365.
- Hwang, J. G., Huh, H. J., & Ahn, H. M. (2013). *Changes in adolescents' participation in experiential activities, self-awareness, and social development: Longitudinal analysis from 1st to 3rd graders in middle school*.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13-R14-3). <https://repository.nypi.re.kr/bitstream/2022.oak/3274/2/14-3.pdf> 국문: 황진구, 허효주, 안현미(2013).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변화와 자아인식·사회적 발달: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중단적 분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R14-3).
- Jeon, H. J., & Chung, H. W. (2016). A longitudinal mediation analysis using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and latent growth modeling: The mediating effects of life

- satisfaction on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s to school life adaptation. *Studies on Korean Youth*, 27(2), 215-242. <https://doi.org/10.14816/sky.2016.27.2.215> ㉮ 국문: 전현정, 정혜원(2016).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과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중단매개효과 검증: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이 삶의 만족도를 매개로 자녀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7(2), 215-242.
- Jeong, G. S., Moon, H. J., Kim, M. A., Kim, H. G., Shim, H. O., Ahn, H. J., Yang, S. E., Lee, J. H., Lee, H. S., Jeong, T. H., Je, G. S., & Han, S. Y. (2012). *Parental Education*. Changjisa. ㉮ 국문: 정계숙, 문혁준, 김명애, 김혜금, 심희옥, 안효진, 양성은, 이정희, 이희선, 정태희, 제경숙, 한세영(2012). **부모교육**. 창지사.
- Jung, M. S., & Yoo, J. B. (2021). J. White's conception of well-being and education: Focusing on exploring well-being in schools. *The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43(3), 105-126. <https://doi.org/10.15754/jkpe.2021.43.3.005> ㉮ 국문: 정문선, 유재봉(2021). 존 화이트의 『학교에서의 웰빙 탐색』에 나타난 웰빙(well-being) 개념과 교육. **교육철학연구**, 43(3), 105-126.
- Jung, S. A., & Chyung, Y. J. (2022).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 and subjective well-being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Mediating effects of peer relationship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2(21), 17-43. <https://doi.org/10.22251/jlcci.2022.22.21.17> ㉮ 국문: 정선아, 정윤주(2022).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21), 17-43.
- Kang, B. E. (2022). The mediating impact of parenting style on the association between paternal involvement and children's grit. *CNU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43(1), 109-139. <http://dx.doi.org/10.18612/cnujes.2022.43.1.109> ㉮ 국문: 강보은(2022). 부의 양육참여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매개로 자녀의 그릿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논총**, 43(1), 109-139.
- Kang, M. S., & Lee, S. H. (2022). A study on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of adolescents' happines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3(4), 1-14. <http://dx.doi.org/10.22143/HSS21.13.4.1> ㉮ 국문: 강만식, 이선화(2022). 청소년의 행복감 발달궤적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21, 13(4), 1-14.
- Kim, E. S., Bae, Y. J., Jo, S. I., Lee, Y. J., Song, S. Y., Lim, J. B., Park, E. Y., Kim, S. G., & Kim, E. G. (2016).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2016*.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6-35). <https://repo.kicce.re.kr/handle/2019.oak/924> ㉮ 국문: 김은설, 배윤진, 조숙인, 이예진, 송신영, 임준범, 박은영, 김신경, 김은정(2016). **한국아동 성장발달 중단연구 2016(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2016-35).
- Kim, H. M., & Hwang, M. H. (2015). Validation of the Korean grit scale for children. *The*

- Journal of Education*, 35(3), 63-74. <https://doi.org/10.25020/je.2015.35.3.63> ㉮ 국문: 김희명, 황매향(2015). 한국판 아동용 끈기(Grit) 척도의 타당화.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교육논총**, 35(3), 63-74.
- Kim, J. C., & Kim, S. C. (2023). A study 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grit, learning attitude, academic stress, and happiness. *Korean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17(1), 99-120. <https://doi.org/10.5718/kcep.2023.17.1.99> ㉮ 국문: 김진철, 김성천(2023). 아동의 그릿과 학습태도, 학업스트레스, 전반적 행복감 간의 관계구조 연구. **육아정책연구**, 17(1), 99-120.
- Kim, M. H., Kim, H. J., & Choi, J. H. (2022). The mediating effect of attention and gri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inconsistent parenting attitude and adolescent's happines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2(11), 17-32. <https://doi.org/10.22251/jlcci.2022.22.11.17> ㉮ 국문: 김명화, 김혜진, 최재혁(2022). 부모의 비일관적 양육태도와 청소년 행복감의 관계에서 주의집중과 그릿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1), 17-32.
- Kim, T. M., & Lee, E. J. (2017).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Parents as social context questionnaire for adolescents: PSCQ_KA.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4(3), 313-333. <https://doi.org/10.21509/KJYS.2017.03.24.3.313> ㉮ 국문: 김태명, 이은주(2017).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척도(PSCQ_KA)의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24(3), 313-333.
- Kim, W. P. (2017). *Rewriting statistics: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Wise In Company. ㉮ 국문: 김원표(2017). **다시 쓰는 통계분석: 구조방정식모델분석**. 와이즈인컴퍼니.
- Kim, Y. H. (2022).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ger strategies and happiness of adolescents: The moderating effect of academic performance.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2(18), 571-587. <https://doi.org/10.22251/jlcci.2022.22.18.571> ㉮ 국문: 김연화(2022).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분노대처방식과 행복감과의 관계: 학업성적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8), 571-587.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Guilford.
- Ko, D. H., & Kim, D. Y. (2021). The trends and tasks of the study on "adolescence happines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8(12), 189-215. <https://doi.org/10.21509/KJYS.2021.12.28.12.189> ㉮ 국문: 고도현, 김도영(2021). "청소년 행복" 연구 동향과 과제. **청소년학연구**, 28(12), 189-215.
- Kwak, S. R., & Lee, K. H. (2019). The effects that school performances and self-esteem of children and adolescents have on happiness and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6(12), 177-199. <https://doi.org/10.21509/KJYS.2019.12.26.12.177> ㉮ 국문: 광수란,

- 이경호(2019). 아동·청소년의 학업성적과 자존감이 우울감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6(12), 177-199.
- Lee, D. U. (2022).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depression/anxiety, subjective happiness, and self-esteem affecting adolescents' career maturity. *Culture and Convergence*, 44(11), 873-885. <https://doi.org/10.33645/cnc.2022.11.44.873> ㉮ 국문: 이동욱(2022).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우울·불안, 주관적 행복감, 자아존중감의 구조적 관계 분석. **문화와 융합**, 44(11), 873-885.
- Lee, J. H., & Ha, J. Y. (2016). Effects of academic self-efficacy, learning motivation, and learning strategy on academic achievement: Comparison of instructor-centered instruction and learner-centered instruction.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5), 259-278. ㉮ 국문: 이지혜, 하정운(2016).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동기, 학습전략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교수자 중심 수업과 학습자 중심 수업 비교.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5), 259-278.
- Lee, J. R., Kim, G. S., Song, S. Y., Lee, Y. J., Kim, J. M., Kim, S. A., & Kim, S. G. (2015). *Korea children's panel 2015*.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5-33). https://kicce.re.kr/main/board/view.do?menu_idx=23&manage_idx=32&board_idx=28534 ㉮ 국문: 이정림, 김길숙, 송신영, 이예진, 김진미, 김소아, 김시경(2015). **한국아동패널 2015**. 육아정책연구소 (2015-33).
- Lee, J. Y., & Kang, S. H. (2021). The longitudinal mediating effects of academic self-efficacy in the Influence of self-directed learning to school happiness of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31(4), 175-195. <https://doi.org/10.21024/pnuedi.31.4.202112.175> ㉮ 국문: 이진령, 강승희(2021). 중학생의 자기주도학습과 학교행복감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종단매개 효과. **교육혁신연구**, 31(4), 175-195.
- Lee, J. Y., & Lee, S. M. (2012).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Korean academic engagement inventory(KAEI).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24(1), 131-147. <http://doi.org/10.17927/tkjems.2012.24.1.131> ㉮ 국문: 이자영, 이상민(2012). 한국형학업열의척도 개발 및 타당화. **교육방법연구**, 24(1), 131-147.
- Lee, S. Y. (2022).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perceived by adolescents,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Application of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Journal of Home Economics Education Research*, 34(3), 49-65. <https://doi.org/10.19031/jkheea.2022.9.34.3.49> ㉮ 국문: 이서연(2022).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간의 종단적 관계: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의 적용. **한국가정교육학회지**, 34(3), 49-65.

- Leung, C. Y. W., McBride-Chang, C., & Lai, B. P. Y. (2004). Relations among maternal parenting style, academic competence, and life satisfaction in Chinese early adolescents.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4*(2), 113-143. <https://doi.org/10.1177/0272431603262678>
- Lewis, A. D., Huebner, E. S., Malone, P. S., & Valois, R. F. (2011). Life satisfaction and student engagement in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0*(0), 249-262. <https://doi.org/10.1007/s10964-010-9517-6>
- Lim, H. J., & Lee, S. R. (2020).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related to parents, teachers, friends, and academic engagement. *Korean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31*(1), 109-127. <https://doi.org/10.20972/kjee.31.1.202003.109> ☞ 국문: 임효진, 이소라(2020). 그릿(Grit)을 매개로 학업열의를 예측하는 부모, 교사, 교우 변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비교. **한국초등교육, 31**(1), 109-127.
- Liu, Y., & Cho, G. P. (2020). The mediating effect of happi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creativity in Chinese middle school students.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10*(2), 219-245. <https://doi.org/10.34226/gcl.2020.10.2.219> ☞ 국문: 유옥민, 조규관(2020). 중국 중학생의 그릿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행복감의 매개효과.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10**(2), 219-245.
- Lyubomirsky, S., & Lepper, H. S. (1999).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46*(2), 137-155. <https://doi.org/10.1023/A:1006824100041>
- Ma, E. T., & Kim, C. K. (2021). A structural relationship analysis of grit, cooperation, academic helplessness and satisfaction with life by adolescents.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37*(4), 61-79. <https://doi.org/10.33770/JEBD.37.4.3> ☞ 국문: 마언타오, 김춘경(2021). 청소년이 지각한 그릿, 협동심, 학업무기력, 삶의 만족도 간 구조분석. **정서·행동장애연구, 37**(4), 61-79.
- Mo, S. H., & Lee, J. S. (2012). An exploration on variables influencing subjective happiness of youth: Moderating effects of family factors on academic stress. *Journal of Holistic Convergence Education, 16*(3), 23-40. ☞ 국문: 모상현, 이중섭(2012).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탐색: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가족관계요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16**(3), 23-40.
- Nakamura, J., & Csikszentmihalyi, M. (2014). The concept of flow. In M. Csikszentmihalyi (Ed.) *Flow and the foundations of positive psychology* (pp. 239-263). Springer. https://doi.org/10.1007/978-94-017-9088-8_16
- Park, K. S., & Oh, I. S. (2016). The effect of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and self-efficacy

- on student engagement: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English subjects interest. *Journal of Research in Curriculum Instruction*, 20(4), 295-305. <https://doi.org/10.24231/rici.2016.20.4.295> ☞ 국문: 박경숙, 오인수(2016). 자기결정성동기 및 자기효능감이 학습 몰입에 미치는 영향: 영어교과흥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과교육학연구*, 20(4), 295-305.
- Park, K. H., & Yoon, M. S. (2021).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happiness of mothers and adolescents and their children's academic enthusiasm: Application of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13), 927-940.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13.927> ☞ 국문: 박경희, 윤미선(2021).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 및 행복감과 자녀의 학업열의 간의 관계: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PIM)의 적용.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3), 927-940.
- Park, S. M., & Park, U. I. (2020).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adolescent happiness.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38(2), 29-49. <https://doi.org/10.7466/JKHMA.2020.38.2.29> ☞ 국문: 박상미, 박응임(2020). 부모애착이 남녀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릿(Grit)의 매개효과. *가정과학의철연구*, 38(2), 29-49.
- Park, S. Y., Shin, M. J., & Kwak, J. Y. (2021). The mediating effects of grit and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utonomy support and happiness of the upper graders of elementary school. *Art Psychotherapy Study*, 1(1), 69-84. <https://doi.org/10.54071/APS.1.1.4> ☞ 국문: 박소연, 신민진, 광진영(2021). 초등학교 고학년이 지각한 부모의 자율성지지가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릿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미술심리치료연구*, 1(1), 69-84.
- Peterson, C., Park, N., & Seligman, M. E. (2005). Orientations to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The full life versus the empty lif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6(1), 25-41. <https://doi.org/10.1007/s10902-004-1278-z>
- Salmela-Aro, K., & Tuominen-Soini, H. (2010).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during the transition to post-comprehensive education: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1(6), 683-701. <https://doi.org/10.1007/s10902-009-9156-3>
- Sang, G. A., Kim, K. H., Park, S. O., Jeon, S. G., Park, M. M., & Lee, J. W. (2020).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n changes in mathematics and science achievement: analysis of TIMSS 2019 results*.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 Evaluation (RRE 2020-10). https://nkis.re.kr/subject_view1.do?otpId=OTP_0000000000005644&otpSeq=0&popup=P ☞ 국문: 상경아, 김경희, 박상욱, 전성균, 박미미, 이재원(2017).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 TIMSS*

2019 평가기반 구축 보고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RRE 2020-10).

- Schaufeli, W. B., Martínez, I. M., Pinto, A. M., Salanova, M., & Bakker, A. B. (2002b). Burnout and engagement in university students: Across-national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3*(5), 464-481. <https://doi.org/10.1177/0022022102033005003>
- Schaufeli, W. B., Salanova, M., González-Romá, V., & Bakker, A. B. (2002a). The measurement of engagement and burnout: A two sample confirmatory factor analytic approach.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3*(1), 71-92. https://doi.org/10.1023/A:1015630_930326
- Sim, H. S., & Jeon, S. H. (2008). Correlation between parents' attitude perceived by middle-school children and psychological independenc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10*(0), 67-87. ☞ 국문: 심혜숙, 진순희(2008).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심리적 독립의 관계. *교육연구, 18*(0), 67-87.
- Shim, J. H., & Yi, G. H. (2018). A longitudinal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the life satisfaction among adolescents: Focusing on gender and academic characteristics.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24*(1), 199-225. <https://doi.org/10.29318/KER.24.1.8> ☞ 국문: 심재휘, 이기혜(2018).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에 대한 중단분석: 성별 및 학업 관련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24*(1), 199-225.
- Shin, M. J., & Park, K. J. (2022).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s' positive parenting attitude and academic engagement. *Transactional Analysis Counseling Research, 12*(2), 121-141. <https://doi.org/10.35476/taca.2022.12.2.121> ☞ 국문: 신민정, 박경진(2022).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교류분석상담연구, 12*(2), 121-141.
- Skinner, E., Johnson, S., & Snyder, T. (2005). Six dimensions of parenting: A motivational model.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5*(2), 175-235. https://doi.org/10.1207/s15327922_par0502_3
- Smokowski, P. R., Bacallao, M. L., Cotter, K. L., & Evans, C. B. (2015). The effects of positive and negative parenting practices on adolescent mental health outcomes in a multicultural sample of rural youth.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46*(3), 333-345. <https://doi.org/10.1007/s10578-014-0474-2>
- Sohn, H. G., & Kim, E. H. (2022). The effect of adolescents' grit and self-esteem on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gender: The moderated mediating affect of academic helplessnes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9*(4), 51-74. <https://doi.org/10.21509/KJYS.2022.04.29.4.51> ☞ 국문: 손한결, 김은혜(2022).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그릿,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의 관계: 학업 무기력의 조절된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9*(4), 51-74.
- Son, S. K., Lee, H. J., & Hong, S. H. (2017). The effects of school learning activities and friendships on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A longitudinal study using a piecewise

- latent growth model. *Studies on Korean Youth*, 28(3), 57-88. <https://doi.org/10.14816/sky.2017.28.3.57> ☞ 국문: 손수경, 이현정, 홍세희(2017). 학교 학습활동과 교우관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할함수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종단관계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8(3), 57-88.
- Song, H. J. (2018). Longitudinal effects of the factors affecting the satisfaction of life in adolescence.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8(2), 22-43. <https://doi.org/10.34226/gcl.2018.8.2.22> ☞ 국문: 송홍준(2018).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종단적 효과분석: 초등학교 6 ~ 중학교 2학년을 중심으로.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8(2), 22-43.
- Steinmayr, R., Wirthwein, L., Modler, L., & Barry, M. M. (2019). Development of subjective well-being in adolesc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6(19), E3690. <https://doi.org/10.3390/ijerph16193690>
- Suh, E. M. (2007). Downsides of an overly context-sensitive self: Implications from the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75(6), 1321-1343. <https://doi.org/10.1111/j.1467-6494.2007.00477.x>
- Willroth, E. C., Atherton, O. E., & Robins, R. W. (2020). Life satisfaction trajectories during adolescence and the transition to young adulth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20(1), 192-205. <https://doi.org/10.1037/pspp0000294>
- Yeom, Y. S., & Sung, G. H. (2021). *Korea's child and youth happiness index: A report on the results of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Korea Foundation for Bang Jung-hwan. https://kossda.snu.ac.kr/bitstream/20.500.12236/25322/4/kor_report_20210010.pdf ☞ 국문: 염유식, 성기호(2021).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 비교연구 조사결과보고서**. 한국방정환재단.
- Lim, H. J., & Yu, B. S. (2022). The effects of grit on child subjective well-being.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32(2), 187-212. <https://doi.org/10.32465/ksocio.2022.32.2.007> ☞ 국문: 임혜정, 유백산(2022). 그릿이 아동의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32(2), 187-212.
- Yim, H. R., Kim, S. H., & Chung, I. J. (2018).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family · school and children's happiness: Focused on differences by the level of school.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70(2), 145-170. <https://doi.org/10.20970/kasw.2018.70.2.006> ☞ 국문: 임혜림, 김서현, 정익중(2018). 가정 및 학교 내 대인관계와 아동의 행복감 간 구조적 관계: 학교급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0(2), 145-170.